

## G20 정상회의, 제 16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제 10 차 UN 생물종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해 의사 결정과 자원 부문에서 도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세계 자원의 친환경적, 생태효율적, 회복력있는 관리체계를 새로이 요청하여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도시 개발을 관리하고, 도시 인프라를 향상시키며, 시민과 토지 이용 관리, 구역 지정에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와 소비 습관의 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위의 내용은 저탄소 녹색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지방정부가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시민, 비즈니스, 연구팀, 다른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고 참여시키는데 오랜 시간 노력해 왔다는 점과 녹색 경제,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인 의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앙 정부와의 파트너십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010년 10월 5-7일에 열린 ICLEI 20주년 기념 총회인,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에 모인 도시와 지방 정부의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은 다음의 메시지에 합의하였다.**

###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보내는 메시지

- 지방 정부들은 세계 주요 20 개국이 세계 금융 시장 규제와 같은 범세계적이며 좀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경제 회복과 발전을 이끄는 데 강력히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세계 주요 20 개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 사람, 자본 투자가 순환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인프라를 목표로 친환경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 에너지 집약 산업에 투자하는 대신, 생태자원을 조성하거나 보호하고, 자원과 자재 집약 제품이나 소비를 지양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거나 이를 지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생태효율을 이루고, 일자리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 지방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경험이 국가의 결정, 정책, 전략, 자원들을 통해 지원되고, 국제 사회에서 좀 더 강하게 인식되기를 요청한다.
- 지방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녹색 경제 프로그램이 지원되기를 요청한다. - 공동청정에너지 솔루션과 안보 전략, 대중교통, 산업, 건물 (가전제품을 비롯한) 기기에서의 생태 및 에너지 효율성과,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로 분산화된 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저탄소 기술.

### 2010년 10월 23-26일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 10 차 UN 생물종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 도심 지역의 자원 소비는 전세계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 공급과 정화를 위한 위생적인 도시의 집수 시스템은 원활한 생태계에 달려있다.
- 지방 정부는 지역의 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데 헌신하고 있다.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연결하는데 장기간 노력해왔으며, 시민과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 도시들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왔다. 지방 정부의 결과나 영향은 지역에 한정되지만,

긴급 사안들은 지역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뿐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프레임워크 제공을 요청한다.

- 지방 정부는 제 9 차 당사국총회의 회의 결정문 28 장 (COP 9 Decision IX/28)에서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행동에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는 생물종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의 실행에 도시와 지방 정부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다.
- 지방 정부는 제 9 차 당사국총회의 회의 결정문 28 장의 강력한 “지방 정부와 생물종다양성 행동 전략 계획 (Strategic Plan of Action on Local Authorities and Biodiversity)”이 나고야에서 열리는 생물종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에서 건의되고 강화될 것을 요청한다.

## 2010 년 11 월 29 일-12 월 10 일에 칸쿤에서 열리는 제 16 차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 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방 정부들이 희망했던 2012 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Post-2012)에 대한 강력하고 범세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코펜하겐 협약의 당사국이 합의한 기존의 국가별 약속으로는 지구 온도를 2°C 만 상승시킨다는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
- 1992 년 이래, 지방 정부는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해 왔다. 기후 대처의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지방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표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방 기후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이를 기후 변화 회복력에 적용하고 구축하는 노력과 결합시켰다.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도시 기획, 폐기물과 수자원 관리, 생물종다양성, 이산화탄소 흡수계의 보존 부문 등에서 세계적 촉진을 시행했다.
-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국제 기후 협약과 결정과정에서 인식되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2012 년 이후 기존의 UN 당사국 협약과 장기 협력 행동을 통한 교토의정서가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방 정부는 다음의 내용을 요청한다.
  - “장기적 협력행동을 위한 공유된 비전 (Shared Vision for Long-term Cooperative Action)”을 위한 에서 지방 정부가 기후 경감과 적응에 주요한 정부 관계자로 인식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 “완화에 대한 강화된 행동 (Enhanced action on mitigation)”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규모의 정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적응 (Adaptation)”에서 지방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적응 행동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한 정부 관계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 당사국에 의한 “국가적으로 적절한 완화행동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의 정의와 자금 지원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정 (Financing)”에서 개발도상국은 긴급, 단기, 중기, 장기적인 행동,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실행 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규모가 증가된 새로운 추가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 “기술과 혁신에 대한 강화된 행동 (Enhanced ac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기술 수요 확인과 함께,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원칙과 조항, 실천으로 배우는 원칙, 필요한 과학,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도되어야 한다.
  - “역량 배양 (Capacity building)”에서 특히, UN 기후당사국총회의 강화 실행과 연관된 최근의 역량 배양 수요를 다루기 위해 지역 및 국가의 역량, 기술, 능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기후 감축과 적응을 위한 도시간 협력은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어 주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세계 탄소 금융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의 조항은 개정되고, 지방 정부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